

#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구축

### 전북연구원, 지역쇠퇴 극복 수단으로 빈집 활용 제안

전북지역 빈집을 주거공간, 문화·복지공간, 경제활력공간으로 활용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3일 이 슈브리핑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집'을 활용해 주거수요를 창출하고 혁신과 활력을 이끌어 내자고 했다.

빈집을 방치하면 마을의 흥물이 되고 마을의 전반적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근원이 되는 반면, 이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면 도시재생의 지역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9763

호인 전북도내 빈집 중 40.4%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므로 주거, 문화복지,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빈집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 돌봄의 노인복지 시설 등의 문화·복지공간, 지역의 활력을 높여 주는 청년들의 창업공간 또는 지역 예술가의 작업·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의 '어르신 한올타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공주의 원도심 주

차장, 일본의 카페, 체험형 숙박시설,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 빈집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처럼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인 청년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문화활동기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장했다.

또 "노노케어(老老Care)를 위한 어르신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 지역민의 문화 및 노인복지를 위한 문화복지공간, 청년 창업과 지역예술가 작업·전시를 위한 경제활력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전주비전대(주)솔라파크코리아, 산학관 협력 MOU 체결  
전북도와 전주비전대학교, (주)솔라파크코리아는 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주비전대학교 홍순직 총장, (주)솔라파크코리아 박현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내 여인숙 114곳 중 56곳... '화재 위험 노출'

도내 여인숙 절반가량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19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과 관련, 도내 여인숙 168곳에 대한 긴급 소방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총 168곳 중 폐업, 건축물 철거 등을 제외한 114곳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양호 58곳, 취약 56곳으로 절반 가까이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시설 대부분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미설치(탈락), 내용연수(10년)

경과 소화기 비치, 문어박시 콘센트 사용, 가스레인지 및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관련해서는 점검반이 직접 기초 소방시설을 교체 또는 보급했다.

/뉴시스

## 전북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추진

전북병무청은 '군 장병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오는 10월 25일까지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우리 국민의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군 장병에게 전달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감사 편지 보내기는 '국군장

병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제출하는 엽서에 써서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접수된 편지는 오는 11월 중 도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병무청은 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화와 축제 등을 찾아가서 홍보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해 국민 인식과 캠페인 참여율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야말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는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으로 연결되는 만큼 많은 국민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이승복 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직 떠나서도 전북도정 발전 기원하며 응원할 것"

이승복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지난달 31일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을 떠나서도 전북도정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복 단장은 고별사를 통해 "지난 40여년이 하룻밤 꿈처럼, 순식간



에 가버린 세월처럼 느껴지다기도, 눈을 감으면 가지각색의 사업들이 흑백영화처럼 아스라한 기억으로 되살아난다"며 아쉬운 석별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존경하는 지사님과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덕분에 김제시 부시장, 환경녹지국장, 군산시 부시장 등을 역임하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입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단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 처리능력으로 가는 곳마

다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 출신인 이승복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1979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정읍시, 익산시, 전라북도 토지구획과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생활안전과장, 김제시 부시장, 안전정책관, 환경녹지국장, 군산시 부시장을 거쳐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의 모든 데이터 '전북 빅데이터 허브' 구축 완료

### 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마련 감염병·강수량 분석 시각화 등 도민의 데이터 활용 편의 제공

전북도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과 도민의 데이터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전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지역 빅데이터 허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9억원, 도비 59억원 등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데이터로 본 전북,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공공생활정보지도,

빅데이터 허브 소개' 등의 메뉴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 및 14개 시·군의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전북 빅데이터 허브사업'은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지원으로 과학적 행정환경 마련과, 공개된 데이터를 통한 도민의 사업과 기초자료 활용,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구축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향후 연관 데이터의 검색과 활용을 쉽게 하고, 중복 구축 및 이중 자료관리를 방지하게 된다.

또한, 자체 도입한 데이터 분석 S/W를 통해 '전북투어패스, 감염병현황, 강수량 보고' 등 3종에 대한 데이터 분석자료를 시각화 제공하여 도민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셀프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나 계획수립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역사와 문화 겸비한 농촌관광의 최적지로!

###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 오늘 개소식 열고 본격 손님맞이

전북도는 삼라농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을 4년간 육성했으며, 오늘 개소식을 열고 본격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원 동편제마을 개소식에는 이현서 전북도 농촌활력과장, 이환주 남원시장, 이정린 도의원, 오인숙 거점마을 위원장 등 마을주민과 각계 초청인사 20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그간 추진경과 보고와 함께 축사, 시설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남원 동편제마을은 지리산 둘레길 구간으로 연중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며, 조선건국의 단초를 만든 황산대첩비지와 동편제 관소리를 접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농촌관광의 최적지로서, 이번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은 통해 남원을 대표할 다양한 체험거리와 숙박, 음식, 농촌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매력 있는 농촌 관광지로 도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가 2015년부터 추진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시·군을 대표하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과, 뜻을 같이하는 주변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또한, 삼라농정의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농촌을 찾는 도민에게 농촌체험·관광·숙박 등 체계적인 농촌관광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조성한 시·군은 12개 시·군(군산, 임실 제외)이며, 이미 준공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시·군은 전주,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으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주, 익산 등 상시 운영 중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방문객 수는 7만 7천명, 매출액은 9억 17백만원에 달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품격장은 "남원 동편제마을을 준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남원시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에서도 농촌 자원을 체험하고 힐링을 즐기는 도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